

배포 2026. 7. 29.(수)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29.(수) 12:00
(지 면) 2026. 7. 30.(목) 조간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

-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 모스크바 현지에서 러시아 전역의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 개최
- 올해 러시아어권 국가에 한국어교재 총 1만 1천여 권 보급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협력으로 한식문화 활용 한국어교육 활성화 기대
- 【관련 국정과제】 99-4.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를 개최한다.

이는 교육부 산하 러시아 내 4개 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수로,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이 연수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한다.

*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사할린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 교육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수행기관으로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지정·운영('25년~), 해외 한국어교육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전략 수립, 연수 등 현지 교육역량 강화 등 추진

연수에는 러시아 전역의 한국어교원 46명이 참가하였다. 2026년 기준으로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러시아 내 다양한 지역의 51개 학교에서 5,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 교재 >



<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 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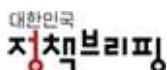
연수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개발한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 교재’와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교재’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교재는 초급 단계(1~4단계)까지 개발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였다.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교재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비티에스(BTS)와 한국 드라마를 소재로 개발한 교재이다. 올해 러시아어권 국가들에 러시아어권 맞춤형 교재와 한류를 활용한 한국어 교재 총 1만 1천여 권을 보급한다.

아울러, 연수의 부대행사로 러시아 내 4개 한국교육원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러시아지사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한국어반 수업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 등 음식 관련 한국문화 교육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세계 청소년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를 선호하는 만큼, 한국의 대중문화와 음식을 활용하면 한국어 교육 효과가 커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 개요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책임자	과장	최윤정 (044-203-6780)
		담당자	서기관	이가원 (044-203-6785)



□ 목적

- 러시아 권역 한국어교원 한국어 수업 역량 강화
- 한국어교원 간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권역 내 한국어교육 확산

□ 개요

- (행사명) 2026년 러시아 한국어교원 연수
- (주최/주관) 4개 러시아 한국교육원 공동
- (일자) 2026. 7. 27.(월) ~ 7.31.(금)
- (장소)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 (참가자) 한국어 채택교 교원 46명

< 러시아 지역 초·중고 한국어반 운영 현황 >

한국교육원	한국어반 운영학교 수	한국어교원 수	한국어반 학생 수
로스토프나도누	21	38	1,403
블라디보스톡	17	22	1,866
하바롭스크	7	9	1,333
사할린	6	9	531
합계	51	78	5,133

□ 주요 강의

- 기초강연(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및 특강(한류)
- 러시아어권 맞춤형 한국어교재 활용법
- 한류 BTS, K-드라마 한국어교재 활용법
- 한국어 수업 교안 작성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주관 강의